

성장지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경 일 수 서 은 영 김 혜 균 탁 진 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장지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척도 개발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기존 척도를 고찰하여 성장지향성 개념을 확립하고 여섯 개 요인 53문항을 선별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등 총 68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후 다섯 개 요인 34문항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성장지향성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등 총 986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첫 집단의 493명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두 번째 집단의 493명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성장지향성 척도의 구성개념을 검증하였다. 집단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8문항으로 구성된 다섯 개 요인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집단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다섯 개 요인구조 모형의 부합도가 높게 나타나 성장지향성의 구성개념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최종 다섯 개 요인은 지능신념, 과정지향수행태도,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운명신념, 재능신념이다. 성장지향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각 요인은 대부분의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준거관련 타당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장지향성, 성장지향성 척도, 타당화

[†] 교신저자: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Tel: 940-5424, E-mail: tak@kw.ac.kr

인간의 성공을 향한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는 화두였다. 그래서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어떤 사람이 성공해왔는지에 대한 성공요인 연구사례와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가 매우 많이 있어 왔다. 성공과 성취는 ‘뜻하던 바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Kundsın(1974)은 스스로 선택한 전문분야에서 기쁘게 정진하면서 동료들로부터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상태를 ‘성공’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리더십 및 자기계발 분야의 전문가인 Maxwell(2006)은 ‘성공이란 자신의 인생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낸 산업화를 한국은 단 50여년 만에 이루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 시기의 성공은 근면 성실과 불굴의 의지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렇듯 성공의 개념과 목표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지향점이나 목표가 새롭게 정의되고 평가된다(고영규, 2004). IMF가 일어난 1997년 이전에는 성공을 위한 소위 엘리트 코스라는 것이 명확히 있었고 일단 그 목표를 이루면 보장 받는 성공의 결과는 매우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적 저성장 기조와 길어진 인간의 수명 그리고 복잡해진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많이 다변화되고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요즘은 이제는 단편적인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Maslow(1970/2009)는 인간의 동기가 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기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 욕구 그

리고 자아실현 욕구의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Maslow(1970/2009)의 자아실현 욕구는 각 개인의 타고난 능력 혹은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되기를 바라며 창조적인 경지까지 자신을 성장시켜 자신을 완성함으로써 성장 잠재력 전부를 실현하려는 욕구이다. 인간이 성공과 성취를 가져올 방향으로 에너지를 투입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회적 동기는 바로 자아실현 욕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Maslow(1970/2009)는 자아실현 욕구는 때로 한계에 부딪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더욱 분발하는 것을 뜻하며, 결핍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긍정적 동기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성숙한 인간 동기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Alderfer(1972: 손영우, 2014에서 재인용)는 이러한 자아실현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포함하여 성장 욕구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여 인간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인 개인의 신념, 사고방식 및 태도를 성장지향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성장지향성은 타고나며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지능, 재능, 운명이 노력으로 변화가능하다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과 과정을 중시하여 배움을 즐기고 노력을 가치있게 여기는 과정지향수행태도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더욱 분발하는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척도로 Dweck(2006/2011)이 개발한 마인드셋 척도가 있다. Dweck(2006/2011)이 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인으로 주장한 ‘마인드셋(mindset)’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들의 가변성에 대한 개인의 핵심적인 신념이다(Dweck, Chiu & Hong, 1995; Dweck & Leggett, 1988). 특히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은 변할 수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으로 이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성장 마인드셋 척도는 ‘지능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믿음만을 측정하고 있다(Dweck, 2006/2011). 즉, 성장 마인드셋 척도는 지능의 가변성만을 측정할 뿐,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특성과 노력하는 태도까지 포함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성장지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장지향성 척도에서는 먼저, 기존 성장 마인드셋 척도가 측정하고 있는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신념을 확장하여 재능과 운명 변화 신념을 추가하였다. 재능 변화 신념은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운동 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내재적 이론으로 지적 능력과 구분되며(Dweck, 2008),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인간이 미래와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운명관(運命觀)은 학습지향적 사고와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김철민, 2002)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성장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운명신념은 기존 마인드셋 척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고정관념으로 우리나라 사회 환경과 인식의 특징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Dweck과 Leggett(1988)는 ‘사회인지적 동기모형(social cognitive model of motivation)’을 제안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의 향상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형

은 점차 귀인방식, 정서, 행동 등을 추가하여 확장하였다(박민영, 2014; 안도희, 김옥분, 표경선, 2005;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et al., 1995; Hong, Chiu, Dweck, Lin & Wan, 1999; Robins & Pals, 2002; Sriram, 2010). 확장된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에서 성장 마인드셋 성향의 사람은 어려움 또는 실패를 경험할 때 전략을 변경하고, 환경변화와 노력 증가 등으로 실패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흔들림 없이 도전한다(이수경, 2016).

성장지향성 척도는 두 번째로, 확장된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에서 주장하는 학습목표와 도전의식의 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을 포함한다. 즉, 성장지향성 척도는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인 성장 욕구를 바탕으로 인간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인 개인의 신념, 사고방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인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출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지향성의 개념

Maslow(1970/2009)는 자아실현 욕구를 성장을 향한 긍정적 동기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성숙한 인간 동기로 보았고 때로 한계에 부딪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더욱 분발하는 것을 뜻하며, 가장 인간다운 욕구로 중

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모든 인간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고 하며, 인생의 노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족시킬만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lderfer(1972: 손영우, 2014에서 재인용)는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을 토대로 개인의 욕구동기를 세 단계로 축약하여 제시하면서 자아실현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포함하여 성장 욕구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여 인간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인 개인의 신념, 사고방식 및 태도를 성장지향성으로 정의한다. 구체적 요인으로는 동기의 기본요소인 ‘지능, 재능, 운명이 변화가능하다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김철민 등, 2004; Brooks, Brooks & Goldstein, 2012; Brooks & Goldstein, 2008)과 과정을 중시하여 배움을 즐기고 노력을 가치있게 여기는 과정지향수행태도(박병기 등, 2005)와 실패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전을 추구하여 극복하는 도전의식(이주훈, 2011)과 회복탄력성(김주환, 2009; Luthar, 1991)의 사고방식과 태도’이다. 이는 성공 가능한 역동적인 자기와 세계를 만들어내는 학습지향적 및 성취지향적 신념과 사고방식 및 태도이다.

Dweck(2006/2011)의 ‘마인드셋(mindset)’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들의 가변성에 대한 개인의 핵심적인 신념으로(Dweck et al., 1995; Dweck & Leggett, 1988) 사람들이 타고나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능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이다. 마인드셋은 동기의 기본요소(Brooks et al., 2012; Brooks & Goldstein, 2008)로 내재적 이론(implicit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재

적 이론 또는 자기이론(self theories)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환경과 타인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의 심리적인 특성들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Molden & Dweck, 2006).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가진 가정이나 신념인 내재적 이론은 Kelly의 성격이론(1955)과 Heider의 사회지각 장이론(1958)에 지적 기반을 두고 있다(Dweck et al., 1995). 전문가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측정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주변 상황이나 개인을 해석하는 명시적 이론(explicit theory)과 달리, 내재적 이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신념으로, 내재적으로 주변과 자신을 예측하게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이수경, 2016; 이정림, 2016). 즉, 내재적 이론에서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속성에 대한 믿음체계에 따라 동기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며, 심리적 특성에 대한 마인드셋은 학습, 노력, 도전, 평가를 포함하는 상황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의미체계를 구성하고(Hong et al., 1999), 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 성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방향,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Dweck, 1991, 2000/2008).

Bandura와 Dweck(1985)은 지능에 대한 내재적 이론을 다루면서,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신념을 실체론(entity theory)와 증진론(increment theory)로 구분했다(Dweck & Leggett, 1988에서 재인용). Dweck은 왜 어떤 학생들은 대단히 명석한데도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일가에 관심을 두고 이들은 지적능력에 대해 걱정하고 항상 이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결국 지능을 고정된 견고한 어떠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신념을 실체론이라 하였다. 즉, 실체론은 지능은 선천적이고 고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노력을 해도 변

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이정림, 2016). 반면에 학생을 학습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능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지능을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여기고, 노력을 통해 육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증진론이라 명명했다. 즉, 증진론은 지능이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다(이정림, 2016). Dweck(2006/2011)은 실체론을 고착 마인드셋(fixed mindset)으로 증진론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다시 명명하였다.

Dweck(2006/2011)의 고착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구분과 용어는 지능 관련 연구 뿐만 아니라, 적성(Dai & Cromley, 2014; Zuckerman, Gagne & Nafshi, 2001), 성격(Beer, 2002; Chiu, Hong & Dweck, 1997; Yeager, Spitzer, Johnson, Trzeniewski, Powers & Dweck, 2014), 도덕성(Chiu et al., 1997), 이성관계(Dweck, 2006/2011) 등 다양한 분야의 심리적인 특성에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성장지향성 척도개발 선행연구

Dweck(1986)은 수행목표를 가지게 되면 능력과 수행의 정해진 기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능력자아개념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과제추구를 회피하고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덜 사용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성취와 관련된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능력자아개념인 것이다. Dweck 등(1995)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관점이 고착된 것인지 변화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행동과 결과를 관점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수행결과에 대해 실체론은

전반적인 능력으로 귀인하는 반면, 증진론은 부정적 결과를 중재하는 노력이나 결과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기반으로 내재적 이론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지능(Intelligence), 도덕성(Morality), 세계관(World) 총 세 개 요인으로 각각 세 문항씩 구성하였다. 여기서 지능에 대해서는 실체론자들은 성과목표에 집중하는 반면, 증진론자들은 학습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도덕성은 내부 통제에 대한 믿음으로 지능의 변화 가능성과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정의했으며, 세계관은 실체론자들이 증진론자들에 비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할 때 변화가 어렵다고 하였다(Dweck et al., 1995). 이후 타당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타당도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Stephen, 2013).

Dweck(2000/2008)은 자기이론에서 지능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견해를 수정하여 마인드셋 척도를 실체론 세 문항과 증진론 세 문항으로 분리하였다. Karwowski(2014)는 창의적 마인드셋(Creative mindsets)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고착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두 개 요인으로 나누고 각 요인당 다섯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안정적 적응력과 창조성의 본질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했으며, 자기이론에서 지능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견해(Dweck et al., 1995)와는 달리 고착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타 변인과의 관계

성장 마인드셋과 타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학습목표와 학습성취, 자기효능감과 회

복탄력성,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이 있다.

학습목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장 마인드셋이 동기부여 및 성취를 가져오며, 배움에 대한 더 큰 동기를 불러오기 때문에(Dweck, 2014),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숙달목표와 노력을 촉진시켜 학습목표 성취를 이루었다(Aditomo, 2015; Blackwell et al., 2007; Good, Aronson & Inzlicht, 2003; Zeng, Hou & Peng, 2016). 지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즐거움,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학점 평균이 높았으며, 학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졌다(Aronson, Fried & Good, 2002).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하였으며(Esparza et al., 2014), 자기 조절과 목표달성에 기여하였다(Burnette, O'Boyle, VanEpps, Pollack & Finkel, 2013).

성장 마인드셋과 목표달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성장 마인드셋이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마인드셋 메커니즘안에 목표, 노력에 대한 믿음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전략 등이 있기 때문이며(Yeager & Dweck, 2012), 그 결과, 학습에 몰입하고, 도전에 직면하며,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Dweck, 2000/2008, 2008).

사람들은 성장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매우 탄력적인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며, 반면에 능력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효능감은 약화된다(Wood & Bandura, 1989). 그러므로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현저히 증가하며, 능력에 대한 개념을 자기효능감의 결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Martocchio, 1994).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인식된 역량이나 사고방식과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하며(Dweck & Leggett, 1988; Heess, 2014), 선행연구에서도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Hass, Katz-Buonincontro & Reiter-Palmon, 2016; Heess, 2014; Karwowski, 2014), 목표지향성의 개인차 및 마인드셋이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Gerhardt & Brown, 2006), 성장 마인드셋이 창조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어서 창조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rwowski, 2014).

또한 삶의 역경에서도 높은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회복탄력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Ryff, Singer, Love & Essex, 1998),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어서 행복감이 증진되었다(Zeng et al., 2016). 이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마인드셋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Gauthreaux, 2015). 건강한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성장 마인드셋과 기준 및 규칙을 가지며, 기준과 역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이끌어 내기에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Chan, 2012).

연구 1: 예비요인 도출 및 문항 개발

연구 1은 성장지향성 척도 예비문항 개발에 관한 것으로, 기존 문헌연구와 성장지향성의 구성개념을 토대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Dweck(2006/2011)의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이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노력을 통해 육성

될 수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다. Dweck 과 Leggett(1988)은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지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모형은 점차 귀인방식, 정서, 행동 등을 추가하여 어려움 또는 실패를 경험할 때 전략을 변경하고, 환경변화와 노력 증가 등으로 실패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경, 2016).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 척도는 ‘지능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만을 측정하고 있어(Dweck, 2006/2011).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특성과 노력하는 태도까지 포함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성장지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인간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인 개인의 신념, 사고방식 및 태도인 성장지향성의 하위요인을 요약하면 개인의 주관적 신념의 경우, 지능신념, 재능신념, 운명신념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운명신념은 성공과 성취가 운칠기삼, 즉 운이 70%, 의지가 30%로 되었다는 고정관념을 믿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환경과 인식의 특징이 잘 묻어난 요인으로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성장지향성의 태도와 사고방식의 경우, 배움을 즐기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과제를 익히며,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실제 태도로서 자신의 유능함을 증진시키려는 학습목표를 과정지향수행태도의 구성요인으로 하였다. 또한 난관과 장애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속적인 시도를 하는 측면에서 도전의식의 사고방식과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태도를 구성요인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구성요

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능신념은 지능이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노력을 통해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다(Dweck & Leggett, 1988).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도전적인 과제를 좋아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자신의 지능을 위한 성취의 과정에 관심을 보인다(Dweck, 2000/2008). 지능이 변경 가능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면 도전하고 배우려는 바람을 갖게 되고 좌절은 장기적 학습과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 당연히 존재하는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즉 실패는 다시금 노력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신호가 될 뿐이다(Dweck, 2000/2008). 이처럼 지능 신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보일 지에 대한 패턴을 예측하게 하며, 과제 상황에서의 태도를 결정지며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능신념으로, 재능이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노력을 통해 재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다.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말하며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른다. 즉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운동 능력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지적 능력과 구분된다. 정명희(1998)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과 재능에 대한 신념은 영역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지적 능력은 고착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운동 능력이나 예술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Stipek와 Gralinski(1996)의 연구

에서는 지능이나 재능에 대한 신념 중 어느 한 가지 신념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과 재능을 구분하였으며 지능에 대한 마인드셋과 같이 실체론과 증진론으로 나누어 재능에 대한 증진론을 재능신념으로 하였다. 재능신념도 학습목표를 선호하고 개인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과정지향수행태도로 학습목표를 지향하는 실제 태도이다. 이 구성요인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중요시하고, 노력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믿음이며 학습에 대한 내재적 가치와 노력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효능감은 노력으로 성공과 숙달에 이를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Ames, 1992; 송인섭 등, 2000). 성취목표지향성은 1980년 중반이후부터 학습목표와 수행목표의 양분법적인 구조로 이해되었다(Ames & Archer, 1988; Button, Mathieu & Zajac, 1996; Elliot & Harackiewicz, 1996). 학습목표는 과제의 학습을 통한 능력의 발달에 초점이 있으며, 수행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의 과시에 초점이 있다(Elliot & McGregor, 2001).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성취 결과에 대한 능력과 노력의 공변 논리가 작용한다(Ames, 1992). 학습목표를 가진 개인은 성취결과가 노력의 함수라고 믿기 때문에, 성취행위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도 자기가치에 손상을 입지 않으며, 성공적인 결과에도 자기가치를 무작정 높이지 않는다. 학습목표지향자는 절대적, 내적 자기참조 기준에 의해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취상황에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과업을 이해하고, 능력의 수준을 향상하는 노력

이 이어진다(박병기 등, 2005).

네 번째 요인은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다. 국내외 학자들은 회복탄력성에 대해 내적, 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Waters & Sroufe, 1983),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 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능감을 발휘하여 대처하며,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Luthar, 1991),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튀어 오르거나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학문적으로는 ‘정신적 저항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총체적인 내적능력(유안진 등, 2005),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김주환, 2009), 스트레스 극복 과정의 결과로서 인간의 내적 과정(생물학적 성격)과 외적 과정(사회적 지지)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산물(이현수, 2009),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내는 긍정적인 힘, 또는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으로 심리적 건강성(박주영, 2012)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실패와 스트레스라는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정신적 저항력을 가져오는 태도로 정의한다. 이는 위기나 역경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이나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인지력 즉,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오현미, 2014).

다섯 번째는 도전의식으로 도전성, 도전정신과 유사하다. 도전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경신 등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는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이다. 위험과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 하더라도 나서서 하는 것이다. 원시시대에서 도전은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도전은 자

신을 개발시켜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자신이 설정한 수행목표에 대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이며,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이주훈, 2011). 정대용 등(2010)은 도전정신을 불확실한 환경과 변화상황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가적 정신으로 보았고 김서연(2010)과 배귀희(2011)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우영희(2016)는 혁신성과 진취성을 도전정신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Latham과 Yulk(1975)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도전성을 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과가 일반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높거나 업무의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하고 높은 위험이 있는 어려운 과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한다.

여섯 번째는 운명신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노력한다 해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에 직면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처나 관망, 회피 또는 포기 등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참조 정보로서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고자 한다(김철민,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운명이라고 정의하며 사람들에게 내재한 운명에 대한 신념, 즉 인간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하는 운명관(運命觀)은 학습지향적 사고와 학습동기에 영향을 준다. 운명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인 사고와 두 번째는 운명은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조명론적인 사고이다. 운명론적인 사고는 사서삼경, 논어 등에 나타나 있는데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정명론(定命論)과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정명론을 인정하되 개인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역명론(易名論)이 있다(김철민 등, 2004). 본 연구의 운명신념은 조명론적인 사고로 자신의 운명은 정해지지 않고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한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연구진은 위에서 기술한 문헌 고찰을 통해 일차적으로 성장지향성의 조작적 정의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지능신념, 재능신념, 과정지향수행태도, 도전의식,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운명신념의 다섯 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차 회의에서는 다섯 개 요인에 대하여 지능신념 17문항, 재능신념 16문항, 과정지향수행태도 27문항, 도전의식 26문항,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30문항 그리고 운명신념 17문항으로 하여 총 133문항으로 정리하였다.

이 문항중에 연구진이 성장지향성 정의에 충실하게 자체 개발한 문항은 70문항으로 예를 들면, 지능신념은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배움을 통한 지능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재능신념은 ‘타고난 재능만을 가진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한 자가 성공할 수 있다.’, ‘비록

재능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과정지향수행태도는 ‘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아가는 배움 그 자체가 즐겁다.’,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내 자신이 무척 대견스럽다.’, 도전의식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므로 실패를 두려워말고 도전해야 한다.’, ‘뻔하고 쉬운 과제보다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에 더 관심이 간다.’,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은 ‘실패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를 성장 시키는 힘이다.’, ‘실패를 먼저 예상하고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는다.’, 운명신념은 ‘운이 나빠서 일을 실패했다는 것은 비열한 패배주의자의 변명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살아갈 길이 이미 정해져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그 외의 문항은 지능, 재능신념은 Dweck(2000/2008)의 마인드셋 척도, 과정지향수행태도는 박병기 등(2005), Button, Mathieu와 Zajac(1996)의 연구, 도전의식은 유희정(1997)의 연구,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은 Reivich와 Shatte(2002/2012), 강남욱(2012), 오현미(2014)의 연구, 운명신념은 김철민(2002)과 김철민 등(2004)의 연구에서 참조하였다.

삼차 회의에서는 각 요인을 성장형 문항 위주로 수정하였고 고착형 문항(역문항)은 각 요인당 한 개에서 두 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향후, 척도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은 먼저 자체개발한 문항을 배열하고 후에 기존 척도의 문항을 배치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문항을 먼저 검토했다. 세 명의 심리학과 박사과정 학생과 한 명의 심리학과 교수가 문항을 보면서 각 문항이 어떤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한지, 의미상 타당한지, 중복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연

구진이 개발한 문항 45개를 포함 최종 여섯 개 요인과 53개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2: 예비조사

연구 1에서 개발한 여섯 개 요인과 53문항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성장지향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개념타당도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및 절차

예비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의 고등학생 235명, 대학생 211명, 성인은 238명 등 총 684명을 대상으로 약 육 주간 온라인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삼학년생과 고등학교 이학년생을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중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고등학교 235명 중 73명을 일학년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 안내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가 받게 될 검사나 절차,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연구책임자에 대한 정보 등을 기술하여 서면동의를 받았고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비실명으로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청소년 자료수집의 경우, 중학교 진로상담 선생님은 코칭심리 석사학위자로 교육상담 박사과정 학생이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한 명은 코칭심리 석사과정 학생, 한 명은 심리학 석사학위자이다. 연구자는 진로상담선생님께 설문조사 전에 설문지를 사전에 제공하고, 학교

를 직접 방문, 선생님과 두 번의 회의를 하여 설문 목적과 취지 등 설문 안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고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추상화능력이 높고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삼학년, 고등학생은 이, 삼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예비조사시에는 중학생을 모집하지 못하여 고등학교 일학년생을 일부 포함하였다. 또한, 진로상담선생님이 학교 책임자와 담임 선생님께 설문을 사전에 제공하고 설문조사의 목적, 취지 등 설문 안내를 설명하여 실시 동의를 받았다. 담임선생님과 진로상담선생님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학생의 성적과 무관하고 불이익이 없으며 참여의무가 없음을 알렸다. 설문조사는 상담시간에 진로상담선생님의 주관으로 실시되었는데, 실시전에 재차 설문지의 목적 취지 등 안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성적과 무관하고 불이익이 없으며 참여의무가 없음을 알렸다. 또한, 설문지에는 학년과 성별만을 기입하는 비실명임을 공지하여 연구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후, 설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제공하였다. 실제 설문조사에는 동의한 학생만이 참여하였고 연구참여의 보상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선물을 미리 파악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일인당 600원~1,000원 상당의 비금전적 보상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자율적인 동의와 자유로운 응답에 대해 불성실 응답은 추후 제거되었을 뿐 설문조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다.

대학생의 경우, K대학교의 심리학 관련 개설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목 담당 교수는 연구자가 아니었다. 담당 교수께 설문조사 전에 설문지를 사전에 제공하고, 설

문의 목적과 취지 등 설문 안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다. 담당 교수는 설문 실시 며칠 전 수업시간에 수업후 설문 실시됨을 안내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을 마친 후에 연구자 한 명과 석사과정학생 두 명이 주관하였으며, 다른 강의실 시간 배정이 어려워 수업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실시전에 설문지의 목적 취지 등 안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성적과 무관하고 불이익이 없으며 참여의무가 없음을 알렸다. 또한, 설문지에는 학과 학년 및 성별만을 기입하는 무기명임을 공지하여 연구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설문조사는 동의한 학생만 참여하였고 연구참여의 보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청량음료를 준비하여 일인당 1,000원 상당의 비금전적 보상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경우 설문조사는 연구자들의 주변인물을 연구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업체를 통한 조사로 수행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구글의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예상되는 연구참여자에게 구두로 설문의 목적과 취지 등 설문지의 안내를 정확히 설명하였고 온라인 설문안내에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설문후에는 글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는 비실명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응답결과에 대해 참여자는 자발적인 결정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시도 설문 안내와 무기명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충분한 시간(최대 일주일 정도)을 준 후 설문응답을 받았으며 면대면 설문지 회수시 일인당 1,000원 상당의 선물로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설문업체에 의뢰한 설문조사는 공신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업체는 자율적으로 연구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 허락을 한 사람들의 설문응답을 얻어 연구자에게 제공하였고 연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모든 경우 실제 불성실 응답지는 데이터에서 제거되었을 뿐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389명(56.9%) 여성 295명(43.1%)이었다. 대상별로는 고등학생은 남성 117명(49.8%) 여성 118명(50.2%), 대학생은 남성 135명(64.0%) 여성 76명(36.0%), 성인은 남성 137명(57.6%) 여성 101명(42.4%)이었다. 성인의 연령대별은 20대 20명(8.4%) 30대 79명(33.2%) 40대 44명(18.5%) 50대 95명(39.9%)이었다.

측정도구

성장지향성 척도

연구 1에서 도출한 53개의 예비문항을 사용하여 각 문항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 하였다. 전체 문항중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을 한두 개 살펴보면, 지능신념의 경우 성장형 문항으로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역문항으로 ‘공부는 좋은 머리를 가지는 사람은 잘한다.’ 재능신념은 ‘타고난 재능만을 가진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한 자가 그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은 ‘나의 실패의 결과에 크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과정지향수행태도는 ‘내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내용을 철저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도전의식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에서도 도전을 한다.’ 운명신념은

성장형 문항으로 ‘합격의 여부는 쌓아온 실력과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역문항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 살아갈 길이 이미 정해져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분석방법

성장지향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 및 예비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를 확인하는데 있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내용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섯 개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수를 여섯 개로 지정하여 표집에 대해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 기법을 통해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섯 개의 각 요인에 한 개 내지는 두 개 역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이 역문항들인 ‘공부는 좋은 머리를 가지는 사람이 잘한다.’ ‘나의 재능은 솔직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등이 한 요인을 이루어 묶여져 응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관련 문항을 제거하였다.

도전의식 요인의 아홉 문항 중 ‘내 능력이 부족한 분야일지라도 도전을 하는 편이다.’

표 1. 예비조사의 성장지향성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지능 신념	회복 탄력성	과정지향 수행태도	운명 신념	재능 신념	공통분
나의 지능은 학습과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779	-.001	-.027	.062	-.011	.672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737	.002	-.027	-.174	.136	.552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의 지능은 바뀔 수 있다.	.677	.066	.059	.136	.005	.576
나의 재능은 향상될 수 있다.	.649	.004	-.095	.049	-.073	.472
배움을 통한 지능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551	.058	-.067	.058	.147	.529
나는 항상 나의 똑똑한 정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477	.052	-.114	.149	-.057	.388
비록 재능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383	.083	.025	.192	.316	.565
나의 실패의 결과에 크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011	.654	-.026	-.056	-.054	.407
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빨리 잊고 다시 시도하는 편이다.	.055	.641	-.049	.049	-.084	.461
실패 이후 부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인해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007	.640	.057	-.067	.103	.400
비록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라도 “다음에 잘 보면 되지”라는 마음이 먼저 든다.	.028	.565	.043	.088	.009	.348
한 번씩 실패를 겪을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을 느낀다.	-.037	.527	-.008	-.003	-.035	.263
실패를 먼저 예상하고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는다.	.032	.414	-.156	.051	-.020	.282
큰 평가를 앞에 두고 크게 긴장하거나 떨려서 평가를 망치지 않는다.	.026	.395	-.016	.005	.018	.176
비록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에 최선을 다 했다면 나는 만족스럽다.	-.062	.356	-.213	.056	.173	.328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종종 여분의 과제를 한다.	-.074	-.007	-.770	-.104	.067	.533
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아가는 배움 그 자체가 즐겁다.	.113	.103	-.667	-.002	-.031	.579
시험이나 취업에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일지라도 배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35	.072	-.611	-.022	.062	.462
내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내용을 철저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128	-.057	-.588	.025	-.038	.389
뻔하고 쉬운 과제 보다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에 더 관심이 간다.	-.020	.130	-.545	.098	.001	.425
수행 과제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도 나는 그 과제에 최선을 다한다.	.006	.093	-.530	-.070	.163	.397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든 확실히 알려고 노력한다.	.022	.043	-.496	.165	-.048	.353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는 자신이 무척 대견스럽다.	.220	-.049	-.314	.266	-.034	.358
자신의 앞날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018	.034	.045	.700	.025	.510
자신의 운명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004	.153	.088	.697	.043	.550
위대한 위인은 시련을 딛고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다.	-.011	-.040	-.184	.409	.100	.295
타고난 팔자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190	.101	-.092	.390	.213	.555
정해진 운명도 바꿀 수 있다.	.195	.088	-.039	.372	.137	.414
합격의 여부는 쌓아온 실력과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089	-.065	-.052	.330	.065	.182
위대한 예술가는 1%의 타고난 재능에 99%의 노력이 더해져야 만들어진다.	.054	.010	-.104	.092	.485	.382
유능한 강점을 가졌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051	-.038	-.116	.157	.459	.316
재능이 없는 분야라도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면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다.	.294	.057	.048	.045	.375	.366
타고난 재능만을 가진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한 자가 그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다.	.128	.066	-.083	.113	.371	.343
우수한 재능은 노력과 훈련만으로도 만들어 질 수 있다.	.278	.055	.017	-.004	.352	.310
Eigenvalues	6.761	4.662	5.990	5.472	4.580	
신뢰도(Cronbach's Alpha)	.874	.779	.844	.779	.704	.921 (전체)

주. 요인추출방법: 주축 요인 추출, 회전방법 : 직접 오블리민, N = 684

‘예전에 실패한 도전 과제에도 다시 도전을 한다.’ 등의 여섯 문항이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과정지향수행태도가 결과보다는 과정상의 노력을 중요시하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 가치와 노력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효능감은 노력으로 성공과 숙달에 이를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도전적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도전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과정지향수행태도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로 도전의식을 연관지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묶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전의식 요인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므로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해야 한다.’의 문항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고정적인 관념으로 운명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전의식 요인의 문항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과정지향수행태도가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전의식 요인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능신념 요인에 재능신념 요인의 ‘나의 재능은 향상될 수 있다.’의 문항은 지능신념의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의 문항과 설문지상에서 가까이 있고 유사하여 지능신념 요인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지능신념 문항으로 남겨 놓았다. 그 외 일부 재능신념의 문항은 지능신념과 재능신념 요인 양쪽에 유사하게 관련되어 존속시켰는데 이는 지능과 재능이 능력에 대한 속성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재능신념 요인에 묶인 과정지향수행태도 신념의 ‘유능한 강점을 가졌더라도 끈기있게 노력하는 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은 재능신념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

능신념 요인에 속한 ‘배움을 통해 좋은 머리 DNA를 뛰어 넘을 수 없다.’ ‘주로 머리 좋은 사람보다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의 문항은 재능신념의 내용을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여러 번에 걸쳐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섯 개 요인구조가 더 의미있다고 판단되어 도전의식 요인의 문항들을 제외하고 타 요인에 속하고 요인계수가 .30보다 낮거나 해석이 어려운 문항 한두 개를 제거한 후, 요인 수를 다섯 개로 지정하고 직접 오블리민 기법을 통해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섯 개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 요인의 신뢰도계수는 .70부터 .84까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장지향성의 특성 가운데 배우고 도전을 즐기고, 노력을 중요시하며 장애 앞에서도 지속적인 시도를 하는 도전의식 요인의 ‘뻘하고 쉬운 과제보다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에 더 관심이 간다.’의 문항이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에 높은 요인계수를 가지는 바, 과정의 배움을 중요시하고, 노력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믿어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인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으로 남겨 놓았다. 최종적으로 예비조사에서는 다섯 개 요인 34문항을 도출하였으며 표 1과 같다.

연구 3: 본조사

연구 3의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다

섯 개 요인과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장지향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수렴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의 경우, 다섯 개 요인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표집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타당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 분석을 위해 성장지향성의 구성개념과 동일한 Dweck(2000/2008)의 마인드셋 변인, 또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습목표지향성 변인(Button et al., 1996)을 선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자기효능감의 준거변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지향성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노력을 통해 능력이 향상가능하고 유능함을 증진시키려 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과 정서를 더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자신감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중학생 206명, 고등학생 269명, 대학생 238명, 성인은 273명 등 총 986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설문 실시와 온라인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조사의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대상자별로 예비조사의 자료수집 절차와 동일한데, 설문지 안내를 통한 서면동의, 연구참여자의 비실명, 설문조사전 연구참여로 인한 이익과 위험, 자발적인 참여 결정과 불이익이 없음, 정보보

호 등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으며, 참여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 542명(55%), 여성 444명(45%)이었다. 성인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35명(12.8%), 전문대졸 31명(11.4%), 대졸 125명(45.8%), 대학원 이상 82명(30.0%)이었다. 성인 직업의 경우 회사원 185명(67.8%), 자영업 29명(10.6%), 무직 및 기타가 59명(21.6%)이었다. 성인의 결혼상태는 기혼이 189명(69.2%), 미혼이 81명(29.7%), 기타 3명(1.1%)이었다. 성인의 연령대는 20대 37명(13.5%), 30대 105명(38.5%), 40대 106명(38.8%), 50대 21명(7.7%), 60대 네 명(1.5%)이었다.

측정도구

성장지향성 척도

연구 1과 연구 2를 거쳐서 개발된 성장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다섯 개 요인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삶의 만족도(SWLS)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나의 삶은 내가 꿈꾸던 이상적 삶과 비슷하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자	구분		성별		합계	
			남	여		
중학생	학년	3	103 (50.0%)	103 (50.0%)	206 (100%)	
		1	37	36	73 (27.1%)	
고등학생	학년	2	92	17	109 (40.5%)	
		3	12	75	87 (32.4%)	
		소계	141 (52.4%)	128 (47.6%)	269 (100%)	
대학생	연령	18~28세	149	88	237	
		무응답	1	-	1	
		소계	150 (63.0%)	88 (37.0%)	238 (100%)	
성인	연령	20~29세	18	19	37 (13.5%)	
		30~39세	56	49	105 (38.5%)	
		40~49세	59	47	106 (38.8%)	
		50~59세	14	7	21 (7.7%)	
		60세 이상	1	3	4 (1.5%)	
		소계	148 (54.2%)	125 (45.8%)	273 (100%)	
	인력유형	결혼	기혼	106	83	189 (69.2%)
			미혼	41	40	81 (29.7%)
			기타	1	2	3 (1.1%)
			소계	148 (54.2%)	125 (45.8%)	273 (100%)
학력	학력	회사원	119	66	185 (67.8%)	
		자영업	17	12	29 (10.6%)	
		무직	12	37	49 (17.9%)	
		기타	-	10	10 (3.7%)	
		소계	148 (54.2%)	125 (45.8%)	273 (100%)	
합계	합계	고졸이하	14	21	35 (12.8%)	
		전문대졸	13	18	31 (11.4%)	
		대학교졸	74	51	125 (45.8%)	
		대학원이상	47	35	82 (30.0%)	
소계	148 (54.2%)	125 (45.8%)	273 (100%)			
합계	합계	합계	542 (55%)	444 (45%)	986 (100%)	

주. 단위 : 명, 괄호는 빈도(%)

주관적 행복감

Diener(1984)는 행복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중요하다고 보고 행복의 다양한 측면 중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관적 행복감’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Seligman(2002/2006)이 수정한 것을 김인자(2006)가 번안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7점 척도는 1점: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7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연구에서 14개 대상들의 평균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김인자(2006)가 번안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한 권현주(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자기효능감

Chen, Gully와 Eden(2001)은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오인수(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여덟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hen, Gully와 Eden(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세운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학습목표지향성

학습목표지향성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상황을 접하여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역량을 개발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Dweck, 1986). 학습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Button, Mathieu와 Zajac(1996)이 개발한 학습목표지향성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여덟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도전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중요시한다.’ Button, Mathieu와 Zajac(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마인드셋

Dweck(2000/2008)이 개발한 성장 마인드셋과 고착 마인드셋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여덟 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Dweck(2000/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Tempelaar 등(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문항의 예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의 지능 수준을 뚜렷이 변화시킬 수 있다’ 등이 있다.

분석방법

성장지향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들의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타당도 분석을 위해 두 집단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사대상자 986명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각각 493명씩 두 개 집단을 홀수, 짝수 번호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타당도 분석

을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집단 1을 통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주축 요인분석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방법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집단 2를 통해서 성장지향성의 타당도 확장을 위해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확인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체 표집을 통해서 성장지향성의 다섯 개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구성개념타당도인 수렴타당도 분석을 위해 성장지향성 각 요인과 수렴 변인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위해서는 성장지향성 요인과 준거 변인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구성개념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성장지향성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 분석을 위해 집단 1에 대해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 기법을 통해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개 요인을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요인들과 중복되어 관련되어 있어서 요인구조의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인과의 요인계수가 낮거나 다른 요인과의 요인계수가 높은 문항에 대해 문항내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요인분석을 여러 번 실행한 결과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섯 개 요인구조의 해석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처음에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요인의 ‘한 번씩 실

패를 겪을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을 느낀다.’의 문항은 모든 요인에 걸쳐 있고 너무 낮은 요인계수로 제거하였고 ‘비록 결과가 좋아도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나는 만족스럽다.’의 문항과 운명신념 요인의 ‘합격의 여부는 쌓아온 실력과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다.’의 문항은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문항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면이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의 의미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함께 묶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문항은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의 다른 문항에 비해 요인계수가 낮아 제거하였다. 재능신념 요인의 ‘우수한 재능은 노력과 훈련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의 문항과 ‘재능이 없는 분야라도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면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다.’의 문항은 지능신념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인계수가 약간 적지만 재능신념 요인으로도 묶여져 재능신념의 의미에 적합한 문항으로 보기에 어려워 제거하였다.

운명신념 요인에 묶여있던 ‘타고난 팔자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의 문항은 요인계수가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요인과 재능신념 요인에도 높게 관련되었지만 연구진은 문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항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에서 지능신념 요인은 일곱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가능하며 통제가능하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지능은 학습과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지능은 타고난 것이지만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은 여덟 개 문항을

표 3. 성장지향성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지능 신념	과정지향 수행태도	회복 탄력성	운명 신념	재능 신념	공통분
나의 지능은 학습과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769	-.025	.004	-.031	.083	.538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743	.043	-.025	-.013	-.077	.587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의 지능은 바뀔 수 있다.	.698	-.040	.065	.035	-.095	.555
배움을 통한 지능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691	.041	.055	.002	-.057	.546
나의 재능은 향상될 수 있다.	.687	-.067	.085	.041	-.077	.531
비록 재능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446	-.043	.115	.193	-.160	.421
나는 항상 나의 특별한 정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425	.150	.138	.084	.133	.356
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아가는 배움 그 자체가 즐겁다.	-.104	.654	.143	.001	-.164	.530
내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내용을 철저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065	.647	.119	-.035	-.165	.508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종종 여분의 과제를 한다.	.096	.630	-.049	-.070	.096	.380
시험이나 취업에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일지라도 배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21	.629	.089	-.053	-.133	.478
수행 과제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도 나는 그 과제에 최선을 다한다.	-.064	.584	-.048	.057	-.127	.365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든 확실하게 알려고 노력한다.	.037	.551	.040	.039	.159	.348
뻔하고 쉬운 과제 보다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에 더 관심이 간다.	.026	.523	.060	.110	.053	.368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자신이 무척 대견스럽다.	.283	.356	-.114	.161	.144	.338
나의 실패의 결과에 크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045	-.078	.758	-.016	-.127	.579
실패 이후 부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인해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039	.008	.723	-.058	.071	.513
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빨리 잊고 다시 시도하는 편이다.	.077	.153	.601	.004	-.038	.504
실패를 먼저 예상하고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는다.	-.148	.135	.419	.324	.058	.379
큰 평가를 앞에 두고 크게 긴장하거나 떨려서 평가를 망치지 않는다는.	.066	.036	.380	.175	.145	.260
비록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라도 “다음에 잘 보면 되자”라는 마음이 먼저 든다.	.164	.152	.375	-.023	-.049	.283
정해진 운명도 바뀔 수 있다.	-.004	-.038	.062	.748	-.012	.568
자신의 운명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028	.001	-.027	.599	-.006	.370
타고난 팔자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089	-.001	.125	.575	-.198	.550
자신의 앞날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313	.079	-.120	.362	.027	.351
유능한 강점을 가졌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24	.186	-.021	.195	-.472	.461
위대한 예술가는 1%의 타고난 재능에 99%의 노력이 더해져야 만들어진다.	.231	.124	.020	.075	-.466	.422
타고난 재능만을 가진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한 자가 그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다.	.228	.170	-.052	.278	-.313	.445
Eigenvalues	5.572	5.020	3.626	4.570	1.597	
신뢰도(Cronbach's Alpha)	.859	.824	.775	.747	.689	.907 (전체)

주. 요인추출방법: 주축 요인 추출, 회전방법 : 직각 오블리민, N = 493

포함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노력을 중요시 하고, 노력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믿음의 내용이 때문에 ‘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아가는 배움 그 자체가 즐겁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든 확실히 알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이 있다. 이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요인은 여섯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패와 스트레스라는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정신적 저항력을 대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실패의 결과에 크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빨리 잊고 다시 시도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운명신념 요인은 네 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자신의 운명은 정해지지 않고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자신의 운명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정해진 운명도 바뀔 수 있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신뢰도는 .75이었다.

재능신념 요인은 세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재능이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노력을 통해 재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위대한 예술가는 1%의 타고난 재능에 99%의 노력이 더해져야 만들어진다.’ ‘유능한 강점을 가졌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있으

며 신뢰도 계수는 .69이었다. 성장지향성 다섯 개 요인 28개 문항의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구성개념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앞서 기술한 대로 전체 표집을 집단 1과 집단 2로 나누어 집단 1의 자료를 통해 얻어진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다섯 개 요인 28개 문항을 집단 2에 그대로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요인 28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부합도 지수 χ^2 은 유의하였다, $\chi^2 = 700.019$, $df = 336$, $p < .001$. RMSEA, CFI, TLI값을 검토한 결과, RMSEA는 .047로 .05 이하이기에 수용 가능한 좋은 부합도를 보였으며, NFI는 .857, IFI는 .920, TLI는 .909 그리고 CFI는 .919로 .90 이상이기에 다섯 개 요인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다섯 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단일요인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다섯 개 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섯 개 요인으로 구성된 성장지향성 척도의 요인구조가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표 5는 성장지향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지능신념과 운명신념, 재능신념과 운명신념이 .64로 가장 큰

표 4. 5요인 모형의 부합도 지수

모형	부합도 지수						
	χ^2	df	NFI	IFI	TLI	CFI	RMSEA
5요인 모델	700.019	336	.857	.920	.909	.919	.047
1요인 모델	1198.558	337	.755	.811	.786	.809	.072

표 5. 요인들간의 상관계수 (N = 986)

요인	지능신념	회복탄력성	과정지향수행태도	운명신념	재능신념
지능신념	-				
회복탄력성	.37**	-			
과정지향수행태도	.39**	.46**	-		
운명신념	.64**	.34**	.44**	-	
재능신념	.63**	.51**	.42**	.64**	-

주. ** $p < .01$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능신념과 재능신념도 .63으로 높은 상관계수값을 보이고 있다.

구성개념타당도: 수렴타당도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성장지향성은 동기부여 및 성취를 가져오며, 배움에 대한 더 큰 동기를 불러오기 때문에(Dweck, 2014),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장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숙달목표와 노력을 촉진시켜 학습목표 성취로 이어졌다 (Aditomo, 2015; Blackwell et al., 2007; Good et al., 2003; Zeng et al., 2016). 또한 성장지향성은 Dweck 등(1995)의 내재적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 전체에 대한 실체론과 증진론을 측정하면서 지능의 가변신념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검사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목표지향성 변인과 Dweck (2000/2008)이 개발한 마인드셋 변인을 선정하여 성장지향성 변인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다섯 개 각 요인 및 전체 점수와 두 개의 수렴변인과의 관계는 예측했던 방향과 일관되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수의 경우, 각각 $r = .45$, $r = .64$, $p <$

표 6. 성장지향성 요인과 수렴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 (N = 986)

성장지향성	마인드셋	학습목표지향성
성장지향성 전체	.45**	.64**
지능신념	.51**	.43**
회복탄력성	.26**	.35**
과정지향수행태도	.24**	.70**
운명신념	.31**	.43**
재능신념	.34**	.33**
평균	3.80	3.76
표준편차	0.74	0.59

주. ** $p < .01$

.01. 이러한 결과는 본 검사의 수렴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거관련 타당도

본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준거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다섯 개 각 요인과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자기효능감의 준거변인과의 관계는 예측했던 방향과 일관되며,

표 7. 성장지향성 요인과 준거관련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 (N = 986)

성장지향성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자기 효능감
성장지향성 전체	.41**	.46**	.65**
지능신념	.27**	.32**	.46**
회복탄력성	.40**	.42**	.48**
과정지향수행태도	.30**	.34**	.56**
운명신념	.31**	.35**	.48**
재능신념	.20**	.24**	.35**
평균	4.27	4.86	3.59
표준편차	1.24	1.09	0.64

주. ** $p < .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정지향수행태도의 성장지향성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가장 크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r = .56, p < .01$. 또한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성장지향성 요인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 크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r = .40, r = .42, p < .01$.

따라서 본 성장지향성 척도는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성장지향성을 통해 행복 증진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지향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체 삶의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지속적

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특성으로 여기는 성장지향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성장지향성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더욱 복잡해진 사회환경, 많이 다변화되고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심리적 특성인 신념, 방식 및 태도 등을 폭넓게 측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Maslow(1970/2009)는 욕구위계에서 자아실현 욕구를 강조하고 성장을 향한 긍정적 동기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성숙한 인간 동기라고 보았다. 이처럼 인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지향의 심리적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Dweck(2006/2011)의 성장 마인드셋 척도는 지능이 변화가능하다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만을 측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과 태도까지 포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포함하는 성장지향적 특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장지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지향성을 인간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인 개인의 신념, 사고방식 및 태도로 정의하고 지능신념, 재능신념, 운명신념, 과정지향수행태도, 도전의식,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여섯 개 요인을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의 신념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의 지능의 변화가능성 신념에 독립적으로 재능과 운명의 변화가능성 신념을 추가하였다. 재능 변화 신념은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운동 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내재적 이론으로

지적 능력과 구분되며(Dweck, 2008)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인간이 미래와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운명관(運命觀)은 학습지향적 사고와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데(김철민, 2002) 성장 관점은 변화의 여지가 많으며,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고정관념으로 우리나라 사회 환경과 인식의 특징이 잘 묻어난 요인으로 판단하여 채택했다. 둘째로, 사고방식과 태도의 면에서, Dweck과 Leggett(1988)의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에서 주장하는 과정 중시적 학습목표 태도를 성장지향적 특성으로 보고 과정지향수행태도로 정의했다. 또한 인간의 성장욕구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면에 가장 가까운 구성개념인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의식을 채택하였다. 과정지향수행태도, 도전의식,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존의 척도도 있지만 성장지향성의 조작적 정의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문항을 직접 개발하였다.

세 차례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다섯 개 요인 모형의 부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이 척도와 구성개념이 유사한 변인(기존 마인드셋 척도와 학습목표지향성)과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감 및 자기효능감 등이 준거와의 유의한 상관을 통해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여섯 개 요인 53문항으로 시작해서 차례로 수행된 교차타당화 요인분석과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로 최종 확정된 다섯 개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운명신념, $M = 3.89$, $SD = .63$, 지능신념, $M = 3.87$, $SD = .59$, 재능신념, $M = 3.52$, $SD = .81$, 과정지향수행태도, $M =$

3.30 , $SD = .60$,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M = 3.11$, $SD = .67$ 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성장 마인드셋 척도와 비교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세 개의 요인이 추가되어 이러한 특성이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일 수 있는 다른 특성을 보다 더 정교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운명신념과 과정지향수행태도 및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세 개 요인이 추가된 것과 함께 도전의식 요인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시사적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도전의식이 삭제된 이유를 우선, 요인 분석적 관점에서부터 살펴보면 도전의식 요인의 총아홉 문항 중 ‘내 능력이 부족한 분야일지라도 도전을 하는 편이다.’ 등의 무려 여섯 개의 문항이 과정지향수행태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정지향수행태도가 결과보다는 과정상의 배움을 중요시하고, 노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도전의식과 연관되기 때문에 함께 묶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요인에서 요인계수가 .30대로 낮은 문항이 있으나 문항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포함시켰고, 재능신념 문항의 경우 일부는 지능신념에, 일부는 양쪽에 유사하게 관련된 문항이 있었으나 능력에 대한 속성으로 보아 구분, 존속시켰는데 이것이 지능, 재능, 운명신념 요인간 상관도가 높게 나온 이유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추가된 운명신념 요인의 경우 우리나라 사회 환경과 인식의 특징이 잘 묻어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및 심지어는 각종 선거에 출마한 국내 유수의 인재들이 운에 따라서 그 성적과 당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되어서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업무에서의 노력이나 가치도 운이 좋아야 된다는 식의 하늘이 뭔가 정해준다는 심리적 귀인이 매우 강하다는 부분에서 본 운명신념 요인의 추가는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지향성 적용에 현실적,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성공을 위한 소위 엘리트 코스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한 유연하고 꾸준한 적응 역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과정지향수행태도와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요인의 추가는 성장지향성 측정에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두 요인은 운명신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교육과 사회 환경적 특징을 역설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과정지향수행태도와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요인의 경우 기존의 지능과 재능에 의존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성과를 우선시하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예비문항 요인분석단계에서부터 최종 타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능과 재능 요인에 희석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며 독립적인 요인으로 남았다는 것은 성장지향성의 요인으로 얼마나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지향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Dweck 등(1995)의 마인드셋 척도를 토대로 초·중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른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그리고 학업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성장지향성 척도 자체를 개발한 사례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런 현황에서 성장지향성에 대한 국내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척도개발과 타당성 검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장지향성 척도 개발에 앞선 Dweck 등(1995)의 마인드셋 연구와 유사한 요인과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Dweck(2000/2008)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차이는 요인은 과정지향수행태도와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그리고 운명신념으로 성장지향적인 태도와 특성을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과 인식을 반영한 점이다. 과정지향수행태도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유사하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노력의 함수라는 믿음으로 과제의 학습을 통한 능력의 발달에 초점이 있으며 결과의 성공과 실패도 배움의 연장선으로 보는 내적 자기참조 기준에 있기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독특한 요인은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운명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신적 저항력이 회복탄력성이며 미래도 노력함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운명신념이다. 이 두 요인은 연구결과 성장지향성의 다른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졌다.

셋째, 기존 연구의 마인드셋에 관한 유사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지 않고 문헌분석, 내용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국내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들이 생각하는 성장지향성을 체계화하였다. 이는 향후 성장지향성에 대한 국제적 비교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연구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장지향성은 성공

과 성취의 동기요소로 생각하는 인식을 뛰어 넘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감 등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천십육년 제팔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 평균점수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최인재 등, 2011), 성장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환경적 장애물에도 과제를 지속하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에 대한 끊임없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거두고 이는 행복과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 성장지향성 증진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으며 성장지향성을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체계적인 성장지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 함으로써 중·고·대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커리어 코칭·상담이나, 라이프 코칭·상담을 시작할 때 기초 검사지로 활용할 수 있다. 각 개인이 성장지향성 척도의 다섯 개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에 더 비중 있는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진로 선택과 경력개발 등 커리어 관련 이슈에서 방향을 설정하거나 전환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부모의 양육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육자에게는 대상 학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훈육의 기본 자료로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용도의 사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성장지향성 증진 코칭 또는 상담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으로 특화

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종속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본 조사 표집시 회사원과 비회사원의 칠대 삼의 비율을 비롯하여 성별, 연령, 학교 등을 고려하고 표집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려 애썼으나, 성인의 인력유형, 학력, 지역(서울지역) 등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 학생, 성인 모두를 대표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둘째, 타당도분석에서 모든 준거변인을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 편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추후 연구에서 준거변인 가운데 일부는 수행(학생들은 학업성적 등)이나 타인의 평가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척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화가능타당도, 변별타당도, 증분타당도 등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척도의 적용대상은 중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넓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요인을 도출하였으나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은 목표와 관심사가 다른 바, 각 대상별 세밀한 성장지향성 척도의 개발과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개발과정에서 중학생을 본 조사 단계에서만 적용하여 일반화를 진행한 바, 추후 중학생의 일반화를 더 정교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로 추상화 능력이 발달하는 중학생의 경우,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저학년에 대해 개인의 신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추상화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남욱 (2012). 회복탄력성, 스트레스요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상관성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규 (2004). TV다큐멘터리에서 성공신화의 의미 연구: KBS <심화창조의 비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주 (2011).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연 (2012). 직업재활시설의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인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철민 (2002). 운명소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3(2), 75-89.
- 김철민, 이성수 (2004). 운명소비행동의 선행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5(1), 1-19.
- 박민영 (2014).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의 암묵적 믿음과 목표성향에 따른 자기 효능감 수준이 노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기, 이종욱 (2005). 2x2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9(1), 327-352.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 학회보, 15(2), 199-227.
- 손영우 (2014). 욕구 단계 이론.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31&cid=41991&categoryId=41991>.에서 2017. 11. 2 자료 얻음.
- 송인섭, 박성운 (2000). 목표지향성, 자기조절 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29-64.
- 안도희, 김옥분, 표경선 (2005). 대학생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성취목적지향 및 학습 접근책간의 관계 모형. 한국교육, 32(4), 3-27.
- 오인수 (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 측정 관련 이슈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3), 49-72.
- 오현미 (2014). 초등영재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창의적 성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희 (2016).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도전정신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6).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희정 (1997). 목표지향과 지각된 능력이 동기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2016). 성인 초기의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과 그릿(Grit)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 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훈 (2011). 체육수업에서 도전의식 프로그램을 통한 정의적 영역발달 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수 (2009). 역경속의 성장. 서울: 학지사.
- 정대용, 김민석 (2010).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가치추구와 경제적 가치추구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3(5), 2299-2321.
- 정명희 (1998). 초·중학생의 목표지향성, 지능에 대한 신념, 인지전략 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ditomo, A. (2015). Students' response to academic setback: 'Growth mindset' as a buffer against de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2), 198-222.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67.
- Aronson, J., Fried, C., & Good, C. (2002). Reducing the effects of stereotype threat o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by shaping theories of intellig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113-2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M., & Dweck, C. S. (1981). Children's theories of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achievement goals. *Unpublished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 Beer, J. S. (2002). Implicit self-theories of shy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1009-1024.
-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1), 246-263.
- Brooks, R., & Goldstein, S. (2008). The mindset of teachers capable of fostering resilience in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3(1), 114-126.
- Brooks, R., Brooks, S., & Goldstein, S. (2012). The power of mindsets: Nurturing engagement motivation, and resilience in students. In S. L. Christenson, A. L. Reschly, & C. Wylie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pp. 541-562). New York, NY: Springer.
- Burnette, J. L., O'Boyle, E. H., VanEpps, E. M., Pollack, J. M., & Finkel, E. J. (2013). Mind-sets matter: A meta-analytic review of implicit theories and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9(3), 655-671.
- Button, S. B., Mathieu, J. E., & Zajac, D. M. (1996). Goal orientation in organization research: A conception and empirical found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67(1), 26-48.
- Chan, D. W. (2012). Life satisfaction, happiness,

- and the growth mindset of healthy and unhealthy perfectionists among hong kong chinese gifted students. *Roeper Review*, 34(4), 224-233.
- Chen, G., Gully, M. S.,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Chiu, C., Hong, Y., & Dweck, C. S. (1997). Lay dispositionism and implicit theorie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19-30.
- Dai, T., & Cromley, J. G. (2014). Changes in implicit theories of ability in biology and dropout from STEM majors: A latent growth curve approa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9(3), 233-24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Criffle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on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Dweck, C. S. (1991). Self-theories and goal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8(3), 199-235.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s Press.
- Dweck, C. S. (2008). 학습동기를 높여주는 공부 원리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차명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0에 출판)
- Dweck, C. S. (2008). Can personality be changed? the role of beliefs in personality and chang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6), 391-394.
- Dweck, C. S. (2011).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 [Mindset: New Psychology of Success]. (정명진 역). 서울: 부글북스. (원전은 2006에 출판)
- Dweck, C. (2014). Teachers' mindsets: "Every student has something to teach me" feeling overwhelmed? where did your natural teaching talent go? try pairing a growth mindset with reasonable goals, patience, and reflection instead. it's time to get gritty and be a better teacher. *Educational Horizons*, 93(2), 10-15.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Dweck, C. S., Chiu, C., & Hong,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l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 267-285.
- Elliot, A. J., & Harackiewicz, J. (1996).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01-519.
- Esparza, J., Shumow, L., & Schmidt, J. A. (2014). Growth mindset of gifted seventh grade students in science. *NCSSMST Journal*, 19(1), 6-13.
- Gauthreaux, E. F. (2015). *Effect of Specific Feedback on Growth Mindset and Achievement*, Louisiana

- State University.
- Gerhardt, M. W., & Brown, K. G.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fficacy development: The effects of goal orientation and affectivit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1), 43-59.
- Good, C., Aronson, J., & Inzlicht, M. (2003). Improving adolescents' standardized test performance: An intervention to reduce the effects of stereotype threa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645-662.
- Hass, R. W., Katz-Buonincontro, J., & Reiter-Palmon, R. (2016). Disentangling creative mindsets from creative self-efficacy and creative identity: Do people hold fixed and growth theories of creativity?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10*(4), 436.
- Heess, J. (2014). *Increased mastery of student life through mastery courses at sit rad?-A glance at self-efficacy and growth mindset within a quasi-experimental design*.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Hong, Y. Y., Chiu, C. Y., Dweck, C. S., Lin, D. M. S., & Wan, W. (1999). Implicit theories, attributions, and coping: A meaning system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588.
- Karwowski, M. (2014). Creative mindsets: Measurement, correlates, consequence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8*(1), 62.
- Kundsin, Ruth B. (1985). *여성의 자기선언 [Women and Success]*. (권명희 역). 서울: 고려원. (원전은 1974에 출판)
- Latham, G. D., & Yulk, G. A. (1975). A Review of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Goal Setting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8*(4), 824-845.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artocchio, J. J. (1994). Effects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6), 819-825.
- Maslow, A. H. (2009). *동기와 성격 [Motivation and personality(2nd ed.)]*. (오혜경 역). 서울: 21세기 북스. (원전은 1970에 출판)
- Maxwell, John C. (2011). *나의 성공지도 [Your road map for success]*. (조영희 역). 서울: 창림. (원전은 2006에 출판)
- Molden D. C., & Dweck, C. S. (2006). Finding "Meaning" in psychology: A lay theories approach to self-regulation,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61*(3), 182-203
- Reivich, K., & shatte, A. (2012). *절대회복력 [The resilience factor]*. (우문식과 윤상운 역). 서울: 물푸레. (원전은 2002에 출판)
- Robins, R. W., & Pals, J. L. (2002). Implicit self-theories in the academic domain: Implications for goal orientation, attributions, affect, and self-esteem change. *Self and Identity, 1*, 313-336.
- Ryff, C. D., Singer, B., Love, G. D., & Essex, M. J. (1998). Resilience in adulthood and later

- life: Defining features and dynamic processes. Lomranz, J. (Eds.), *Handbook of aging and mental health*. New York: Plenum.
- Seligman, M. E. P. (2006). 긍정심리학 [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역). 서울: 물푸레. (원전은 2002에 출판)
- Sriram, R. (2010). Rethinking intelligence: The role of mindset in promoting success for academically high-risk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15(4), 515-536.
- Stephen, A. S. (2013). The Impact of a Growth Mindset Intervention on the Reading Achievement of At-Risk Adolescent Students. *University of Virginia*.
- Stipek, D. J., & Gralinski, H. (1996). Children's Beliefs about Intelligence and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 397-407.
- Tempelaar, D. T., Loeff, S. S., & Gijselaers, W. H. (2009). *Real Learning Opportunities at Business School and Beyond* (pp. 53-70). Springer Netherlands.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ood, R., & Bandura, A. (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3), 407-415.
- Yeager, D. S., & Dweck, C. S. (2012). Mindsets that promote resilience: When students believ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can be developed. *Educational Psychologist*, 47(4), 302-314.
- Yeager, D. S., Spitzer, B. J., Johnson, R., Trzeniewski, K. H., Powers, J. & Dweck, C. S. (2014). The far-reaching effects of believing people can change: Implicit theories of personality shape stress, health, and achieve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6), 867-884.
- Zeng, G., Hou, H., & Peng, K. (2016). Effect of growth mindset on school engag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Frontiers in Psychology*, 7.
- Zuckerman, M., Gagne, M., & Nafshi, I. (2001). Pursuing academic interests: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12), 2621-2631.
- 1차원고접수 : 2017. 07. 02.
수정원고접수 : 2017. 12. 03.
최종게재결정 : 2018. 03. 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rowth Orientation Scale

Ilsoo Kyung Eunyoung Seo Hyeoguen Kim Jinkook Tak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Growth Orientation Scale(GOS). 53 items and 6 factors of the GOS were obtained based on questionnaires from expert. the preliminary on-line surveys from persons was carried to analyze factor structure of the GOS. The final result showed that the 5 factor model with 34 items was appropriate. Finally, to test validity of the GOS, the main on-line survey was carried that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986 persons across a wide divided into two sub-groups (each group with 493 person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with group 1 showed that the 5-factor model with 28 items was appropriate. Also,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group 2 showed that the 5-factor model fit the data well. Final 5 factors were as follows: 1) intelligent belief 2) process-oriented performance attitude 3) resilience 4) fate belief 5) talent belief. The GO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various criteria such as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self-efficacy, mindsets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rowth orientation, growth orientation scale, validation